

## 창업가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요인 : 긍정심리자본과 선행요인

김형민 (중앙대학교 창업학과 박사과정)\*

김진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가 웰빙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검증하고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창업가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긍정심리학의 배경에서 탄생한 긍정심리자본을 주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긍정심리자본과의 연관성이 예측되는 선행요인으로 진성리더십, 숙달목표지향성, 사회적지지를 선정하여 가설과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수립된 모형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133부의 응답자료를 바탕으로 PLS구조방정식 분석과 다집단분석(PLS-MGA), 중요도-수행도 분석(IPMA)을 시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긍정심리자본은 창업가의 웰빙과 매우 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성리더십과 숙달목표지향성은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사회적지지의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못했다. 창업초기와 성장기의 창업단계별 인과관계 차이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에 대해서만 나타났는데, 세가지 선행요인들은 희망과 낙관주의에 대해서 각각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성과요인 규명 등에 편중되었던 국내 창업가정신 연구주제를 확장하였다. 창업기업의 핵심 주체인 ‘창업가’의 정신적 웰빙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여 수립한 인과관계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했고, 이를 통해 창업가 및 연구자, 교육자에게 실무적 통찰력의 단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창업가의 웰빙, 긍정심리자본, 진성리더십, 숙달목표지향성, 사회적지지, 위계적성분모형(HCM)

### 1. 서론

2019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11번째 유니콘기업의 탄생을 직접 발표하면서, 더 많은 유니콘기업을 배출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언론에서도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며 우리나라 창업시장의 발전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전망했다. 한편, 2017년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수는 총 1,747,791개(개인 88%, 법인 12%)로, 이 창업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이 705.5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창업한 기업의 수도 2015년 813천개, 2016년 876천개, 2017년 913천개, 2018년 920천개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창업진흥원, 2020). 이와 같은 성과들은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 학계, 민간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성장과정 속에서도 국내 창업기업들의 5년 생존률이 OECD 평균인 41.7%에 훨씬 못미치는 2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소멸기업 중 1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2.2%, 2-4인기업의 비중이 5.6%였다는 점은,

소규모 또는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방증하는 것이다(통계청, 2019). 이에 정부에서도 실패한 창업가의 재도전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양적인 면에서 활성화되었고 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실패한 창업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받는다. 따라서 창업생태계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창업가의 정신적 건강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편, 2017년 창업진흥원이 창업가와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창업인식 실태조사」에서, 창업의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더 큰 경제적 수입(60.6%)’과 ‘자율적 업무(50.0%)’가 ‘취업난(25.2%)’, ‘적성(27.6%)’, ‘아이디어 사업화(19.3%)’ 등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게 집계되었다(창업진흥원, 2017). 이렇게 물질적·외향적 측면에 창업의 이유가 편중되게 나타난 것은, 각종 매체들이 성공한 창업가의 화려한 모습들 위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도 명암이 있듯이 부와 명예를 창출한 창업가도 정신적·내면적 측면에 어두운 면이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미국에서는 창업가와 타직군 종사자

\* 제1저자, 중앙대학교 창업학과 박사과정, bossmin90@gmail.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sunny@cau.ac.kr

· 투고일: 2020-09-09 · 1차 수정일: 2020-10-12 · 1차 수정일: 2020-10-22 · 게재확정일: 2020-10-28

를 대상으로 정신병력에 대한 비교연구가 있었다. 연구결과 창업자 중 절반가량(49%)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약물중독, 우울증, 불안증세 등의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조군(32%)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특히, 우울증의 경우 창업가(30%) 대 대조군(15%), ADHD의 경우 창업가(29%) 대 대조군(5%)으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Freeman et al., 2015). 이 연구는 창업가의 정신적 고통이 타직군 종사자에 비해서 월등하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실증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창업생태계는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창업 활성화정책과 창업가들의 혁신적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창업가의 건강한 정신상태는 창업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창업가의 웰빙으로 연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tephan, 2018), 창업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또 다른 한 축인 정신적·내면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매우 부족하였다. 창업가의 웰빙은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창업가정신의 관점에서 창업가 웰빙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웰빙 수준이 높은 사람이 문제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사고의 폭이 넓으며, 더 창의적이라는 결과 때문이다(Tan & Qu, 2015; Tan et al., 2019). 즉, 웰빙은 창업가에게 필요한 창의성과 혁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며, 웰빙 수준이 높은 창업가가 업무효율성이 더 높으며, 성과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hir, 2015). 따라서, 창업가 웰빙에 관한 연구는 창업가정신 분야에서 새롭게 이슈가 되는 중요한 주제이며, 향후 창업가 웰빙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창업가정신 연구 분야에서도 웰빙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창업가 웰빙의 정의와 연구방향(Wiklund et al., 2019), 창업가 웰빙과 벤처 성과와의 관계(Shir, 2015),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Rauch et al., 2018), 창업가정신과 유다이모닉(eudaimonic) 웰빙(Ryff, 2017, 2019), 종속변수로서의 웰빙연구(Shepherd et al., 2018) 등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창업가 웰빙에 대한 심리학적 구조를 파악하거나, 창업가 웰빙을 새로운 연구변수의 하나로 도입하여 창업가정신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세우는데 집중하면서, 창업가의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무적 관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의 한계와 창업가 웰빙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업가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검증하고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이론적, 실무적으로 타당한 창업가 웰빙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연구모형과 가설은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PLS구조방정식을 적용한 통계적 분석으로 검증한다. 본 조사에서는 수집된 133개의 설문지를 바탕으

로, 측정모델 평가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구조 모델을 평가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며, 부트스트래핑을 시행하여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고 가설을 검증한다. 또한, 창업기업을 창업단계에 따라 창업초기(1~3년)와 성장기(4~7년)의 두 표본으로 분류하고 다집단분석(PLS-MGA)을 시행하여, 수립된 연구모형이 창업단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창업학연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창업가 웰빙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연구결과로 제시되는 창업가 웰빙의 증진방안이 창업생태계 종사자들에게 실무적인 영감으로 작용되어, 창업가의 웰빙증진은 물론 창업기업의 성과창출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창업교육 현장에서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창업가의 웰빙

웰빙 연구의 전통은 삶의 만족감과 긍정·부정 정서를 핵심으로 하는 주관적 웰빙(Diener, 1984)과 개인의 잠재력 실현과 완벽함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심리적 웰빙(Ryff, 1989)으로 양분되어 왔다.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은 구성 요인의 이해, 감정에 대한 적응과 목표의 중요성, 기질 기반, 문화적 영향, 측정 방법, 방법론적 개선 등이 연구되었고(Diener, 2000;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개인의 성장, 삶의 목적, 자기수용감으로 6개의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이론적·조작적 정의, 측정도구 개발,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 과학적 변수로 활용 등이 연구되었다(Ryff, 2017; Ryff & Keyes, 1995). 웰빙 연구의 두가지 전통을 요약하면 아래 표 <표 1>과 같다.

<표 1> 주관적 웰빙과 심리적 웰빙의 비교

구분	주관적 웰빙(SWB)	심리적 웰빙(PWB)
기원	쾌락주의적(hedonic) 행복	자기실현적(eudaimonic) 행복
관점	좋은 삶은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행복은 자기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
하위요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자기수용, 개인적 성장, 삶의 목표, 환경의 통제, 자율성,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대표 학자	Edward F. Diener	Carol Diane Ryff

2000년 무렵부터 일부 창업가정신 연구자들이 창업가의 웰

빙이라는 연구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했다. 먼저 연구자들이 내린 창업가의 웰빙의 정의는, Shir(2015)는 창업가의 웰빙(entrepreneurial well-being)을 ‘주관적웰빙으로서 독특하고 중요한 창업가의 인지적·정서적인 산물이며, 이는 창업가의 심리, 행동, 성과에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정신건강 상태’라고 하였다. Wiklund et al.(2019)는 창업가의 웰빙을 ‘창업가가 벤처의 개발, 시작, 성장 및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 긍정 정서, 간헐적 부정 정서 및 심리적 기능의 경험’이라고 정의하였고, 심리적 기능은 자기 수용, 개인적 성장, 목적(의미), 정신 건강, 환경 통제, 자율성, 긍정적 관계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창업가 웰빙은 창업가의 다면적인 정신·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구성개념으로 정의되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심리학계에서 전통적으로 양분되어 연구되었던 주관적웰빙(Diener, 1984)과 심리적웰빙(Ryff, 1989)을 모두 통합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 정의의 맥락을 수용하여 주관적 웰빙과 심리적웰빙의 두가지 웰빙을 모두 포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창업가의 웰빙에 대한 선행연구로, 창업가 특성에 맞는 웰빙연구의 필요성(Dolan et al., 2008), 종속변수로서 창업가 웰빙의 학문적 의미(Shepherd et al., 2018; Shir, 2015), 창업가 웰빙의 다면적 특성과 창업가정신과의 관계(Wiklund et al., 2019) 등과 같이 웰빙을 창업학 연구영역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었다. 또한, 창업가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로, 창업과정의 기대감과 효능감이 창업가 웰빙에 미치는 영향(Cooper & Artz, 1995), 인적자본, 동기, 개인특성, 벤처특성이 창업가 웰빙에 미치는 영향(Carree & Verheul, 2011), 창업가의 부정적 정서특질과 긍정적 정서특질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Delgado-García & Rodríguez-Escudero, 2012) 등이 있었다. 그리고, 창업가 웰빙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Wincent et al.(2008)는 높은 웰빙 수준을 가진 창업가가 지속적으로 업무수행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한바 있으며, Stephan(2018)은 높은 수준의 정신적 웰빙은 창업가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Shir(2015)는 창업가의 웰빙이 창업가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와같이 창업가의 웰빙은 창업학 분야에서 연구주제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있고, 독자적인 구성개념으로서 다양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독립변수로서의 창업가 웰빙이 창업가의 업무수행능력과 업무효율성,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창업가의 웰빙 증진이 실무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창업가정신 연구 분야에서 웰빙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심리학 분야와 비교하여 많이 부족한 편이다.

전통적으로 심리학계에서 이루어졌던 웰빙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성격특성(Butkovic et al., 2011; Costa & McCrae, 1980; Deneve & Cooper, 1998), 국가, 민족, 문화(Diener et al., 2003;

Eid & Diener, 2001) 등 기질적 요인에 의한 웰빙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는 비교론적 연구가 많았다. 반면,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적인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로, 직무 스트레스(Pugliesi, 1999), 상태적 불안(Nurwahyuni et al., 2019),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불안(van Steijn et al., 2019), 불안, 우울, 인지왜곡(Yuksel & Bahadir-Yilmaz, 2019), 소진(Lall et al., 2019) 등 부정적인 영향요인을 규명한 연구들이 있었고, 이와 달리 긍정적인 영향요인들은,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Magaletta & Oliver, 1999), 목적의식, 즐거운 감성(Diener et al., 2011), 회복탄력성(Idris et al., 2019),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Chavapattanakul, 2020), 감사, 희망, 낙관주의, 삶의 만족도(Kardas et al., 2019) 등이 연구되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두 상태적인 특징을 가지며, 확연하게 긍정·부정 영향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영향요인들은, 창업가의 웰빙에도 긍정적인 연관성을 가질 것이며 실무적으로도 창업가 개인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창업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웰빙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긍정적 영향요인들을 종합하여, 이 요인들이 창업가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 2.2 긍정심리자본

창업가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을 들 수 있다.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은 개인의 행복 촉진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했던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긍정심리학은, 기존의 심리학 연구가 노이로제, 스트레스, 분노, 낙담, 우울, 소진 등 인간의 부정적인 정신 측면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간이 행복과 성공을 성취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되기위해 필요한 요인들의 탐색을 연구방향으로 제시하였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이런 학문적 기조는 긍정심리자본이 창업가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론적 배경이 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웰빙의 긍정적 영향요인들 중에 상당부분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맥락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을 창업가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인으로 선정한다.

Luthans et al.(2004)는 긍정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자본(what you have), 인적자본(what you know), 사회적자본(who you know)의 개념을 확장하여 긍정심리자본(who you are)의 이론적 토대를 세웠다. 연구자들은 긍정심리자본을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학적 발달 상태’로 정의하고, 이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네가지를 제시하였다(Luthans et al., 2007).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

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동기, 인지자원 또는 행동코스를 일정한 맥락 안에서 동원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이나 자신감(Bandura, 1997), 희망(hope)은 목표에 도달하는 경로(pathway)와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agency)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 상태(Snyder, 2000), 낙관주의(optimism)은 미래에 대한 개인들의 긍정적인 신념이나 태도 및 사고방식(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역경, 갈등, 실패, 책임감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역량(Luthans, 2002)으로 각각 정의되었다. 하위요인 네가지는 심리학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왔던 구성개념으로, 사회계열 연구분야에서도 최근까지 주목을 받으며 연구변수로 채택되고 있다.

한편, 긍정심리자본은 기질적(trait-like)이지 않고, 학습 또는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상태적(state-like)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이나 사회적자본처럼 투자되고 관리될 수 있는데(Luthans et al., 2004),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은 각 하위요인별로 다음과 같이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또다시 주어진 과제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에 대한 숙달경험(mastery experience), 관련된 타인이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의 관찰(모델링)을 통해 개인의 능력이 향상되는 대리학습(vicarious learning and modeling), 존경하는 사람이나 관련된 타인의 설득·조언으로 인한 자신감 상승과 관련된 사회적설득(social persuasions), 신체적·정서적으로 느끼는 만족감과 관련되는 생리적·심리적자극(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arousal)의 네가지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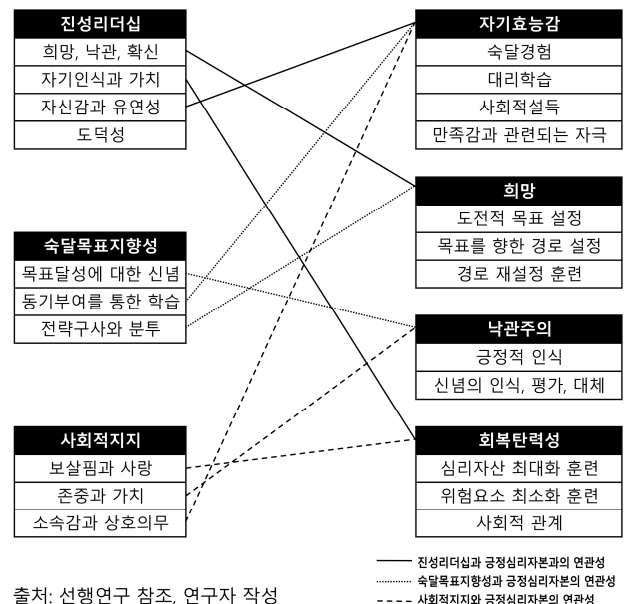
둘째, Snyder(2000)는 희망이론에서 목표(goal)를 향한 경로(pathway), 의지(agency)를 통해 희망을 정의하였고, 희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훈련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희망이 더이상 기질적(trait-like)인 요인이 아니라 상태적(state-like)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희망의 훈련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프로세스화하고 목표에 대한 경로를 설정한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진행 중인 과정을 즐기고, 진행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새로운 경로를 설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희망의 덫’을 피하기 위해 목표를 재설정하는 리허설 훈련이다.

셋째, 낙관주의는 과거에 희망과 같이 기질적인 측면으로 여겨졌던 개념이었다. 하지만,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은 ‘학습된 낙관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상태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별로 낙관주의 성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긍정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chulman(1999)은 낙관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도전상황에서 자기패배적 신념을 확인하고, 확인된 신념을 정확히 평가하고, 평가된 부정적인 신념과 반대되는 발전적인 신념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넷째, 회복탄력성은 치료심리학에서 연구되기 시작했던 요

인으로 개인(심리)자산과 위협요소 두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개인자산은 긍정적 결과와 역경대처에 대한 좋은 적응력을 나타내고, 위협요소는 부정적 결과와 나쁜 적응력을 나타낸다. 개인자산의 개발과 위협요소의 최소화가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중요한 긍정적 자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Luthans et al., 2004).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는 개인이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실무적인 10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 좋은 사회적 관계, 위기와 변화의 긍정적 인식, 목표추진, 결단력 있는 행동, 희망, 긍정적 시각 등이었다(APA, 2014).

학자들이 제시한 각 하위요인의 증진방안에 대한 맥락에는, 성취·숙달, 학습·훈련, 사회적 설득, 도전적 목표설정과 달성, 긍정적인 인식과 신념, 좋은 사회적인 관계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구성개념으로 진성리더십(authentic leadership), 숙달목표지향성(mastery goal orientation),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를 선정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과 같이, 이 세가지 요인의 의미와 특성들은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의 증진방안들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선행연구 참조, 연구자 작성

<그림 1> 긍정심리자본과 선행요인과의 연관도

### 2.3 진성리더십

2001년 미국에서는 혁신기업으로 선정되었던 에너지기업 엔론(Enron)의 회계장부 조작사건을 계기로, 학자들과 실무자들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리더십 스킬에 초점을 맞춘 기존 리더십의 대안을 찾게 되었다. 2004년 네브라스카-링컨대학교의 켈럽 리더십연구소 설립을 기점으로 진성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었다. Avolio et al.(2004)는 현대 조직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신,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의미성의 복구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진성리더십은 리더로서의 강·약점과 가치를 성찰하는 자기 인식(self-awareness), 균형있는 사고와 신념을 구성원과 공유하는 관계 투명성(relational transparency), 반대 관점에 대한 균형적 처리(blanced processing), 외부압력의 저항과 윤리적기반에 의한 도덕적 관점(internalized moral perspective)의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고, 진성적인 리더는, 자신을 알고,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신과 타인의 가치 및 도덕적 관점, 지식 및 강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타인에 의해 인식되는 사람이며, 그들이 운영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자신감 있고, 희망적이며, 탄력적이며, 높은 도덕적 성격을 가진 리더이다(Gardner et al., 2011).

진성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 자체의 개념을 정서적 프로세스, 귀인이론, 사회인식, 윤리학, 긍정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면서 확장해 왔다. 진성리더십 연구자들은 부분적으로 긍정심리학의 출현(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긍정적 조직행태(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POB)(Luthans, 2002), 긍정조직학(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POS)에 의해 영감을 받았고, Luthans(2002)에 의해 확인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의 긍정적 행태를 진성적 리더의 자질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조직리더의 진성리더십이 근로자의 웰빙과 참여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이 실증적으로 입증된바 있다(Gardner et al., 2011).

이와같이 진성리더십은 탄생 배경에서부터 긍정심리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진성적 리더는 조직원이나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의 진성성이 타인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긍정심리자본까지 증진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

## 2.4 숙달목표지향성

성취목표지향성(achievement goal orientation)은 사회인지체계 연구영역에서 개발된 성취목표이론을 근간으로 하며, 학습자가 주어진 과업(task)에 대해 해석하고 반응하여 인지, 정서, 행동의 다른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성취목표이론은 학습자의 동기나 성취 행태에 대해, 학습참여 과정에서 채택되는 학습자의 이유나 목적으로 설명한다(Ames, 1992).

성취목표지향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숙달(mastery)목표지향과 성과(performance)목표지향의 두가지 요인 모형이 근간이 되었다. 숙달목표지향의 학습자는 성공이 노력과 적절한 전략의 사용 결과라고 믿고, 내재적 동기부여를 통해 학습하고, 인지전략을 사용하고, 도전과 실패를 끈질기게 계속한다. 반면, 성과지향의 학습자는 성공이 우월한 능력과 경쟁자를 능가하는 것의 결과라고 믿으며, 타인을 능가하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한다(Elliott & Dweck, 1988).

이후 후속 연구가 진행되면서, 성취목표지향성은 기존의 두 가지 요인에 접근과 회피의 두가지를 개념을 결합하여, 숙달-접근, 숙달-회피, 성과-접근, 성과-회피의 네가지 요인으로 2x2 구조모형이 제안되었다. 숙달-접근지향의 학습자는 가능한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각고를 통해 도전을 극복하며, 과제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증진한다. 숙달-회피지향의 학습자는 과거에 했던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이나, 학습의 실패를 회피하기 원한다. 성과-접근지향의 학습자는 자신의 높은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려고 한다. 성과-회피지향의 학습자는 노력없이 성취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동료들보다 무능력해 보이는 것을 회피하려고 노력한다(Wolters, 2004).

한편, 성취목표지향성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 및 웰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Kaplan & Maehr(1999)은 성취목표와 학생들의 학업적 웰빙과의 인과성 연구를 통해, 성과목표지향의 학습자는 심리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숙달목표지향의 학습자는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Berry(2007)는 성취목표지향성과 희망 두가지 요인이 학생의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Hsieh et al.(2007)는 학생들의 숙달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검증했으며, Jowkar et al.(2014)는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학업적 회복탄력성이 유의한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이렇듯 성취목표지향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를 통해 진행되어 왔는데, 이는 성취목표이론에 근거한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습·훈련자의 동기와 성취에 대한 인지체계이기 때문이다. 창업가에게 창업교육이나 경영교육 등의 학습·훈련은 창업성과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성취목표지향성은 창업가에게도 중요한 구성개념이 된다.

이와같이 성취목표지향성은 특히, 숙달목표지향성은 교육·훈련 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선행연구들에서 긍정심리자본 및 웰빙 간의 부분적인 관계도 밝혀진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숙달목표지향성이 긍정심리자본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하고 긍정심리자본의 매개를 거쳐 창업가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

## 2.5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가족, 친구, 중요타인(significant other)으로부터 제공하는 유무형의 지각된 지원이다.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관계인으로부터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실체라는 점에서 지지적인 사회적 네트워크(supportive social network)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Fairbrother, 2011). 사회적지지는 70년대 중반부터 심리학, 의학, 사회학, 간호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주제로 관심받기 시작했다. Cobb(1976)은 사회적지지의 세가지 요소를 보살핌과 사랑받는

정보, 존중과 가치의 정보, 소속감과 상호의무의 정보로 규정하였다. 즉,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Gore(1978)은 사회적인 지지의 함의를 ‘존중의 손실없이 의존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으로 정당한 역할의 속성’이라고 개념화 했고, 사회적지지는 사랑, 안전, 자기표현, 인지, 소속감, 성적만족에 대한 ‘분발하는 정서’에 기여하는 대처의 자산이라고 정의하였다. Thoits(1982)는 사회적지지를 정성적 측면과 정량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정성적 사회적지지는 인지된 의미와 사회적 관계에서 표출되는 가치의 프로세스, 정량적 사회적지지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 접촉 밀도, 빈도, 관계의 복잡도 등과 같은 형태학적 구성 개념이라 정의하였다. Cohen & Hoberman(1983)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이라고 정의하고, 도구적지지(tangible), 평가적지지(appraisal), 정서적지지(self-esteem), 동반자지지(belonging)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개념화하였다. 이처럼 관련 정의가 다양하고 학자들의 견해가 통일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지지가 그만큼 맥락적이고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Williams et al., 2004).

사회적지지의 선행연구들은 수혜와 제공이라는 상호작용의 관점에 대한 연구(Rook, 1987; Silverstein et al., 1996), 구조적, 기능적 영역으로 사회적지지를 분석(Cohen & Wills, 1985), 인지적지지와 실질적지지로 거래의 유형으로 분류한 연구(Gurung et al., 2003), 사회적지지의 효과에 대한 연구(Taylor, 2011)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사회적지지의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로 구분된다. 제공자의 태도나 도움의 정도 또는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주목을 받아왔다(Cohen & Wills, 1985).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직접효과(direct effects)와 완충효과(buffering effects)로 나뉜다. 완충효과는 역경의 상황에서 효익이 나타나는 반면, 직접효과는 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효익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두 효과를 구분한다(Taylor, 2011). 이와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사회적지지의 정의나 작동 메커니즘에 관해 학자들마다 차별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지만, 수혜자가 인지하는 심리적 긍정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사회적지지와 긍정심리자본 간의 인과관계를 예측하는 근거가 된다(APA, 2014; Bandura,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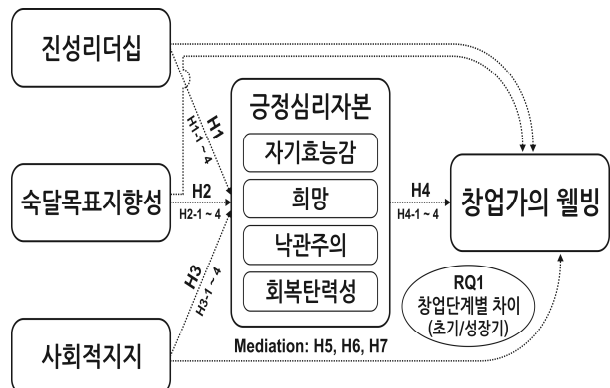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중요타인에 의한 사회적지지가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창업가의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

### III. 연구 설계

#### 3.1 연구 모형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시사점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수립한 가설을 구조화한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창업가의 진성리더십, 숙달목표지향성, 사회적지지는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심리자본은 창업가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진성리더십, 숙달목표지향성, 사회적지지를 매개할 것으로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향관계는 창업초기와 성장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여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수립한다.

본 연구모형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창업가 웰빙에 대한 심리학적 구조를 파악하거나, 창업가와 관리자 또는 다른 대조군과의 비교,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에 대처를 통한 웰빙의 증진에 대한 연구 등과 달리,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창업가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창업가에게 필요한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적자본 이외에도 창업가 웰빙에 중요한 자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긍정심리자본을 증진하기 위한 선행요인들을 선정하고 검증함으로써, 창업가가 선행요인의 함양을 통해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실무적인 시사점 도출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림 2> 연구 모형

#### 3.2 연구 가설

##### 3.2.1 진성리더십

리더십은 창업가가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자질의 하나이다. 리더십 연구분야에서는 최근 공유리더십, 변혁적리더십, 셀프리더십, 관계지향리더십, 참여적리더십, 감성리더십 등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이 주목받아왔다. 그 중에 하나인 진성리더십은 긍정심리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Avolio et al., 2004), 조직리더의 진성리더십은 조직원의 웰빙과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증된바 있다(Gardner et al., 2011). 또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진성리더십의 특징들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진성리더십의 희망, 낙관, 확신적 태도는 긍정심리자본의 희망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자기인식과 가치에 대한 태도는 회복탄력성의 개

인(심리)자산 최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진성리더십의 자신감과 유연적 특성은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진성리더십이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H1: 창업가의 진성리더십은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창업가의 진성리더십은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창업가의 진성리더십은 창업가의 희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창업가의 진성리더십은 창업가의 낙관주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4: 창업가의 진성리더십은 창업가의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숙달목표지향성**

숙달목표지향성은 주로 학습·훈련과 관련된 구성개념으로, 학습자의 동기나 성취행태가 학습 성과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Berry, 2007).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일관적으로 관련 학습 및 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해왔고(Bandura, 1997;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Snyder, 2000), 숙달목표지향적 학습자들의 특성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바 있다. 숙달목표지향성의 목표달성에 대한 신념은 낙관주의의 신념 인식, 평가, 대체와 연관성을 가지며,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지는 학습 태도는 자기효능감의 성공에 대한 숙달경험 및 대리학습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전략구사와 분투의 특징은 희망 훈련 모델에서 제시하는 경로의 설정, 재설정 과정과 연관성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숙달목표지향성이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H2: 창업가의 숙달목표지향은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창업가의 숙달목표지향은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창업가의 숙달목표지향은 창업가의 희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창업가의 숙달목표지향은 창업가의 낙관주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4: 창업가의 숙달목표지향은 창업가의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사회적지지**

가족, 친구, 중요타인(significant others)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지지는, 특히 개인이 정신적인 역경에 빠졌을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 Wills, 1985). 또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간, 사회적지지와 회복탄력성 간의 인과관계도 밝혀진바 있다(APA, 2014; Bandura, 1997). 사회적지지 요인의 하나인 보살핌과 사랑은 회복탄력성의 개인(심리)자산으로 작용하고, 존중과 가치의 요인은 낙관주의의 긍정적 가치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속감과 상호의무의 요인은 자기효능감의 사회적설득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사회적지지가 긍정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H3: 창업가의 사회적지지는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1: 창업가의 사회적지지는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2: 창업가의 사회적지지는 창업가의 희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3: 창업가의 사회적지지는 창업가의 낙관주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4: 창업가의 사회적지지는 창업가의 회복탄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긍정심리자본**

인간의 정신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주로 심리학 분야의 연구 주제였고, 전통적으로 개인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노이로제, 스트레스, 분노, 낙담 등이 연구 대상이었다. 이러한 연구기조에 반대하여 탄생한 긍정심리학은, 인간이 행복과 성공을 성취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을 탐구해 왔고(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이에 기초하여 구성된 긍정심리자본은 인간의 만족과 행복의 기초가 되는 ‘자본’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상당부분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같은 맥락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이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H4: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은 창업가의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1: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은 창업가의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2: 창업가의 희망은 창업가의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3: 창업가의 낙관주의는 창업가의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4: 창업가의 회복탄력성은 창업가의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직접적으로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긍정심리자본의 선행요인으로 선정된 진성리더십, 숙달성취지향성, 사회적지지의 영향을 매개하여 간접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한다.

H4: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은 진성리더십과 웰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5: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은 숙달성취지향성과 웰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6: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은 사회적지지와 웰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3.2.5 창업단계별 차이

기회를 포착하고 개발하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창업가의 프로세스(entrepreneurial process)는 불확실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불확실성의 원인은 창업단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는 창업가의 정신세계도 창업단계에 따라 변화된다(Rauch et al., 2018).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인 진성리더십, 숙달목표지향성, 사회적지지, 긍정심리자본, 창업가 웰빙의 관계도 창업단계별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한다. 창업단계 구분은 보편적 분류기준인 예비 및 창업초기(1~3년)와 성장기(4~7년)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검증해본다.

RQ1: 창업가의 진성리더십, 숙달목표지향성, 사회적지지, 긍정심리자본, 창업가의 웰빙 간의 영향관계는 창업초기와 성장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3 측정 도구

### 3.3.1 창업가의 웰빙

창업가의 웰빙은 주관적 웰빙과 심리적 웰빙의 척도를 함께 구성하여 측정한다. 창업가의 주관적 웰빙은 Shir(2015)가 개발한 창업가 만족도 척도(ESS: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Scale)에서 3문항을 선정한다. 창업가 만족도 척도(ESS)는 주관적웰빙(SWB: Subjective Well-Being)을 창업가정신의 맥락으로 접목하여, 창업가정신 프로세스의 참여과정에서 발생하는 만족과 행복감으로 개념화하고, Diener et al.(1985)의 삶의 만족도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에 반영하여 개발된 것이다. 창업가의 심리적 웰빙은 Berkman(1971)과 Brunetto et al.(2011)이 사용한 심리적 웰빙 척도 중에서 3문항을 선정한다. 전체 측정문항은 아래와 같이 총 6문항으로 구성되며, 측정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한다.

<표 2> 창업가의 웰빙 척도 측정문항

구분	측정 문항
주관적 웰빙	나는 창업가로서의 내 삶에 만족한다.
	모든 면에서 현재 창업가의 삶은 나의 이상형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다시 커리어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해도, 나는 창업가로서의 커리어를 다시 선택할 것이다.
심리적 웰빙	나는 창업가로서 하는 일이 신나고 재미있다.
	나는 창업가가 된 것이 내 직업인생에서 중요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창업가로서 무언가를 성취해냈다고 생각한다.

### 3.3.2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의 측정은 임태홍(2014)이 개발한 한국판 긍정심리자본척도(K-PPC: Korean version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를 사용한다. 이 측정변수들은 Paker(1988), Scheier & Carver(1985), Snyder et al.(1996), Wagnild & Young(1993)이 개발한 네가지 하위변수들을 재구성하고, 이중언어자를 통한 교차번역 검토,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설문항목은 자기효능감 5문항, 낙관주의 5문항, 희망 5문항, 회복탄력성 3문항으로 구성되며, 측정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한다.

### 3.3.3 진성리더십

진성리더십의 측정은 Walumbwa et al.(2008)이 개발한 진성리더십 측정도구(ALQ: Authentic Leadership Questionnaire)를 번역하여 사용한다. 원래 ALQ는 진성리더십의 네가지 특성에 따라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자가 대표 문항으로 제시한 8개의 문항으로 축소하여 사용한다. 진성리더십의 네가지 특성에 따라 관계적 투명성 2문항,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 2문항, 균형잡힌 처리 2문항, 자아인식 2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며, 측정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한다.

### 3.3.4 숙달목표지향성

숙달목표지향성의 측정은 Elliott & Church(1997)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연구에서 구성한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성취목표를 측정하기 위해, 숙달목표, 성과-접근목표, 성과-회피목표 3가지 부문에 대해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숙달목표지향성으로 사용된 6문항을 채택하고 번역하여 사용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학습대상으로 지정한 교육과목(심리학)을 창업 및 경영교육으로 변환하고, 측정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한다.

### 3.3.5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의 측정은 Zimet et al.(1988)가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지지 다차원척도(MSPSS: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번역하여 사용한다. 이 도구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중요타인(significant other)지지에 대해서 각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응답자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요인적재치가 높은 문항으로 2개씩 엄선하여 총 6문항을 사용한다. 측정은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한다.

#### IV. 실증 분석 결과

##### 4.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0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온라인 응답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139부가 회수되었으며 의심스러운 응답패턴을 보이는 6부는 제외하고 133부가 통계분석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통계적 검정력 계산 소프트웨어인 G\*Power를 활용하여 최소 표본크기를 계산한 결과, Cohen(1992)이 제안했던 유의수준 5%( $\alpha$  err prob=0.05), 통계적 검정력 80%(Power (1- $\beta$  err prob=0.8) 및 중간효과 크기  $f^2=0.15$ 인 수준에서 85개가 최소 표본크기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수집된 응답 표본의 수는 통계적으로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PLS구조방정식(PLS-SEM: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프로그램인 SmartPLS(v.3.3.2)을 이용하였다. PLS Algorithm 분석으로 측정모형을 평가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구조모형을 평가하여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긍정심리자본의 통합된 구성개념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위계적성분모형(HCM: Hierarchical Component Model)을 적용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을 상위성분(HOC: Higher-Order Component)으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은 하위성분(LOC: Lower-Order Component)으로 설정하여 반영적-형성적(reflective-formative) HCM 모형을 구성하였다(Lohmöller, 1989). 분석의 실행방법으로 2단계접근법(two-stage approach)을 사용하여, 반복지표접근법(repeated indicator approach)에서 나타나는 결정계수( $R^2 \approx 1.0$ ) 문제를 해결하였다(Ringle et al., 2012).

연구문제(RQ1)로 제시했던 창업단계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창업초기(예비창업자 포함)와 성장기의 두 표본집단에 대해 다집단분석(PLS-MGA: 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개별모형과 위계적성분모형을 각각 분석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로를 다각적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중요도-수행도 분석(IPMA: Importance Performance Map Analysis)을 실시하여, 긍정심리자본과 창업가웰빙에 대한 구성개념과 측정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시각화하였다. PLS-IPMA는 구조모형에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총효과를 중요도축(X)으로, 백분위화한 잠재변수점수를 성과축(Y)으로 하여 구성개념 및 측정변수의 좌표를 표시한다(Höck

et al., 2010; Slack, 1994).

##### 4.2 표본의 특성 및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3>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106명(79.7%), 여성이 27명(20.3%)이었다. 연령은 40대가 66명(49.6%)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30대 49명(36.8%), 20대, 50대, 6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62명(46.6%)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석사 33명(24.8%), 전문대졸, 박사, 고졸 순으로 분포되었다. 창업단계는 예비창업과 창업초기를 합쳐서 37명(27.8%), 성장기는 70명(52.6%), 창업 후 8년 이상이 26명(19.5%)이었다. 매출액은 5억 미만이 90명(67.7%)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5억~10억 24명(18.8%), 10억~50억 16명(12%)이었으며, 그 이상은 매우 적은 빈도를 나타냈다.

연구변수의 측정문항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자료들의 표준편차는 모두  $\pm 3$  미만이므로 3시그마법(3 Sigma Rule)을 기준으로 이상치(outlier)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도와 왜도의 경우에도 모두  $\pm 2$ 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air et al., 2019).

<표 3>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06	79.7
	여성	27	20.3
합계		133	100
나이	20대	13	9.8
	30대	49	36.8
	40대	66	49.6
	50대	4	3.0
	60대 이상	1	0.8
합계		133	100.0
학력	고졸	8	6.0
	전문대졸	17	12.8
	대졸	62	46.6
	석사	33	24.8
	박사	13	9.8
합계		133	100.0
창업단계	창업 이전(예비창업)	6	4.5
	창업 후 1년~3년	31	23.3
	창업 후 4년~7년	70	52.6
	창업 후 8년 이상	26	19.5
합계		133	100.0
매출액	5억 미만	90	67.7
	5억~10억	24	18.0
	10억~50억	16	12.0
	50억~100억	2	1.5
	100억 이상	1	0.8
합계		133	100.0

##### 4.3 측정모델의 평가: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모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집중타당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판별타당도를 평가하였다. 평가과정에서 외부적재치가 0.7미만으로 나타난 측정변수 8개는 삭제하고, 다시 재평가하여 <표 4>와 같이 결과를 종합하였다. 표와 같이 모든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개별측정변수와 잠재변수들에 대한 측정모델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측정모델의 평가 결과

잠재 변수	측정 변수	집중타당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판별 타당도
		외부적 재치	측정변수 신뢰도	AVE	크론바하 알파	rho_A (ρA)	CR	
		> 0.7	> 0.5	> 0.5	> 0.7	> 0.7	> 0.7	
진성 리더십 (LDS)	lds1	0.794	0.630	0.703	0.861	0.873	0.905	Yes
	lds3	0.866	0.750					
	lds4	0.815	0.664					
숙달목표 지향성 (MGO)	mgo1	0.819	0.671	0.682	0.847	0.897	0.895	Yes
	mgo2	0.804	0.646					
	mgo3	0.812	0.659					
	mgo4	0.756	0.572					
	mgo5	0.785	0.616					
	mgo6	0.786	0.618					
사회 적지지 (SSP)	ssp1	0.757	0.573	0.630	0.883	0.891	0.911	Yes
	ssp2	0.729	0.531					
	ssp5	0.894	0.799					
	ssp6	0.909	0.826					
자기 효능감 (SEF)	sef1	0.857	0.734	0.750	0.917	0.920	0.937	Yes
	sef2	0.862	0.743					
	sef3	0.911	0.830					
	sef4	0.860	0.740					
	sef5	0.837	0.701					
희망 (HOP)	hop1	0.846	0.716	0.682	0.767	0.768	0.865	Yes
	hop2	0.784	0.615					
	hop3	0.709	0.503					
	hop4	0.869	0.755					
	hop5	0.882	0.778					
낙관주의 (OPT)	opt2	0.807	0.651	0.618	0.875	0.881	0.906	Yes
	opt3	0.857	0.734					
	opt4	0.844	0.712					
	opt5	0.846	0.716					
회복 탄력성 (RES)	res1	0.870	0.757	0.754	0.839	0.854	0.902	Yes
	res2	0.875	0.766					
	res3	0.860	0.740					
창업가의 웰빙 (EWB)	swb1	0.761	0.579	0.673	0.877	0.886	0.911	Yes
	swb2	0.749	0.561					
	swb3	0.865	0.748					
	pwb1	0.865	0.748					
	pwb2	0.753	0.567					
	pwb3	0.709	0.503					

#### 4.4 구조모델의 평가

구조모델의 평가를 위해서 PLS Algorithm을 실행하여 다중공선성(VIF), 결정계수(R<sup>2</sup>), 효과크기(f<sup>2</sup>)를 확인하고, 블라인드 폴딩(blindfolding)을 통해 예측적 적합성(Q<sup>2</sup>)을 검토하였다. 첫째, 다중공선성 평가결과 잠재변수들 간의 VIF(Inner VIF Value)값은 <표 5>와 같이 모두 5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다중공선성에 대한 평가결과

변수	SEF	HOP	OPT	RES	EWB
LDS	1.238	1.238	1.238	1.238	
MGO	1.199	1.199	1.199	1.199	
SSP	1.169	1.169	1.169	1.169	
SEF					2.241
HOP					2.418
OPT					1.580
RES					1.652

둘째, 내생잠재변수들의 결정계수(R<sup>2</sup>)는 아래 <표 6>과 같다. 창업가의 웰빙은 중간(>0.5) 이상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효능감과 희망은 다소 약한 설명력(>0.25)을, 낙관주의, 희망은(=0.25) 약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결정계수에 대한 평가결과

내생잠재변수	R <sup>2</sup>	보정된 R <sup>2</sup>
SEF	0.337	0.321
HOP	0.324	0.308
OPT	0.256	0.238
RES	0.220	0.202
EWB	0.541	0.526

셋째, 효과크기(f<sup>2</sup>)의 경우 <표 7>과 같이 진성리더십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가장 큰 효과크기(>0.3)를 나타냈다. 그러나, 숙달목표지향성과 사회적적지는 일부가 작은 효과크기(>0.02)를 나타냈고, 일부는 효과크기가 미비하여 내생변수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7> 효과크기에 대한 평가결과

변수	SEF	HOP	OPT	RES	EWB
LDS	0.332	0.284	0.100	0.175	
MGO	0.035	0.029	0.014	0.002	
SSP	0.007	0.000	0.069	0.010	
SEF					0.118
HOP					0.186
OPT					0.003
RES					0.005

마지막으로, 블라인드폴딩(blindfolding)을 통한 예측적 적합성(Q<sup>2</sup>)의 평가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모든 내생잠재변수들에 대해 0보다 크기 때문에 구조모델의 예측적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8> 예측적 적합성에 대한 평가결과

내생잠재변수	Q²(-1-SSE/SSO)
SEF	0.239
HOP	0.209
OPT	0.159
RES	0.146
EWB	0.320

### 4.5 가설검정

수립된 위계적성분모형(HCM: Hierarchical Component Model)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3>, <표 9>와 같다. 가설 H1, H2, H4, H5, H6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H3과 H7은 기각되었다. 긍정심리자본은 창업가의 웰빙에 매우 크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성리더십과 숙달목표지향성에 대한 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9> 가설검정 결과 (HCM)

가설	경로	경로계수	t값	p값	가설검정
H1	진성리더십 -> 긍정심리자본(HOC)	0.544	7.539	0.000	채택
H2	숙달목표지향성 -> 긍정심리자본(HOC)	0.170	2.057	0.040	채택
H3	사회적지지 -> 긍정심리자본(HOC)	0.005	0.054	0.957	기각
H4	긍정심리자본(HOC) -> 창업가 웰빙	0.729	19.365	0.000	채택
H5	진성리더십 -> 긍정심리자본(HOC) -> 창업가의 웰빙	0.396	6.745	0.000	채택
H6	숙달목표지향성 -> 긍정심리자본(HOC) -> 창업가의 웰빙	0.124	2.006	0.045	채택
H7	사회적지지 -> 긍정심리자본(HOC) -> 창업가의 웰빙	0.004	0.053	0.958	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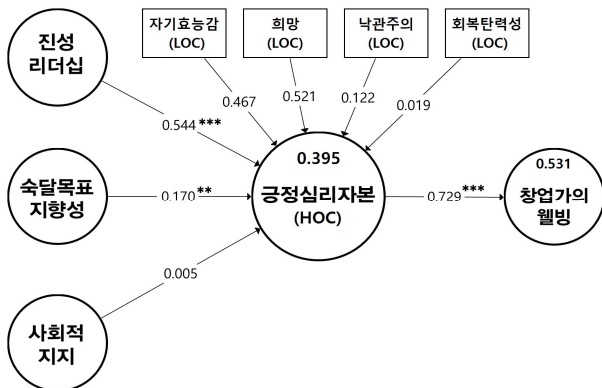
<표 10> 가설검정 결과 (개별모형)

가설	경로	경로계수	t값	p값	가설검정
H1-1	진성리더십 -> 자기효능감	0.522	7.452	0.000	채택
H1-2	진성리더십 -> 희망	0.488	5.636	0.000	채택
H1-3	진성리더십 -> 낙관주의	0.304	2.529	0.012	채택
H1-4	진성리더십 -> 회복탄력성	0.410	3.969	0.000	채택
H2-1	숙달목표지향성 -> 자기효능감	0.167	2.118	0.035	채택
H2-2	숙달목표지향성 -> 희망	0.154	1.925	0.055	채택
H2-3	숙달목표지향성 -> 낙관주의	0.111	1.074	0.283	기각
H2-4	숙달목표지향성 -> 회복탄력성	0.040	0.461	0.645	기각
H3-1	사회적지지 -> 자기효능감	-0.074	0.833	0.405	기각
H3-2	사회적지지 -> 희망	0.015	0.174	0.862	기각
H3-3	사회적지지 -> 낙관주의	0.245	2.148	0.032	채택
H3-4	사회적지지 -> 회복탄력성	0.097	0.898	0.369	기각
H4-1	자기효능감 -> 창업가의 웰빙	0.348	3.005	0.003	채택
H4-2	희망 -> 창업가의 웰빙	0.454	3.866	0.000	채택
H4-3	낙관주의 -> 창업가의 웰빙	0.044	0.540	0.590	기각
H4-4	회복탄력성 -> 창업가의 웰빙	-0.059	0.657	0.511	기각

진성리더십은 긍정심리자본에 대해 가장 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숙달목표지향성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지지는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가설검정과는 별도로, 사회적지지를 고-지지군과 저-지지군으로 분류하여 다집단분석을 실행한 결과, 긍정심리자본이 창업가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지지군이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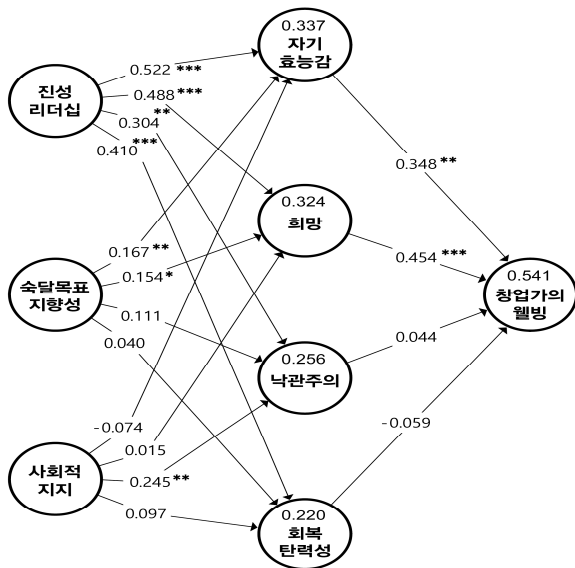
이 결과는 사회적지지가 긍정심리자본에는 영향으로 미치지

않지만, 창업가의 웰빙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그림 3> PLS-SEM 분석 결과(\*\* $p < 0.05$ , \*\*\* $p < 0.01$ )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을 개별변수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4>, <표 10>과 같다. 진성리더십은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숙달목표지향성은 자기효능감과 희망에 유의한 영향을, 사회적지지는 낙관주의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가의 웰빙에 대해서는 자기효능감과 희망 두가지 요인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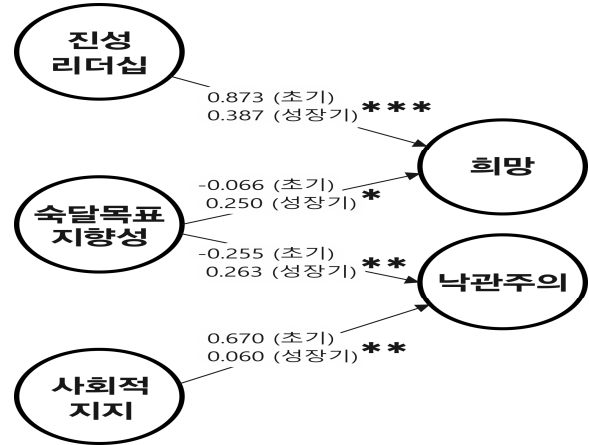
(\* $p < 0.1$ , \*\* $p < 0.05$ , \*\*\* $p < 0.01$ )

<그림 4> PLS-SEM 분석 결과

#### 4.6 추가 분석

연구문제(RQ1)로 제시했던 창업단계별 인과관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비 및 창업초기의 표본과 창업후 4년~7년 성장기 표본을 대상으로 다집단분석(PLS-MGA: Multi Group Analysis)을 실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그림 5>, <표 11>와 같다. 분석결과 연구모형에서의 총 16개 경로 중에 4개의 경로에서 두 집단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성리더십과 사회적지지는 각각 희망과 낙관주의에 대해 성장기보다 창업초기에 더 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목표지

향성은 희망과 낙관주의에 대해 창업초기보다 성장기에 더 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 4개의 경로를 가진 위계적성분모형(HCM)에 대한 다집단분석은, 전체 경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PLS-MGA 분석결과(\* $p < 0.1$ , \*\* $p < 0.05$ , \*\*\* $p < 0.01$ )

<표 11> 창업단계별 다집단분석 결과

경로	경로계수 차	단측 p-원값	p-신값	유의성
진성리더십 -> 희망	0.486	0.002	0.004	유의함
숙달목표지향성 -> 희망	-0.316	0.963	0.073	유의함
숙달목표지향성 -> 낙관주의	-0.519	0.985	0.030	유의함
사회적지지 -> 낙관주의	0.610	0.007	0.013	유의함

## V. 결론

### 5.1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는 창업가의 정신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가의 웰빙과 긍정심리자본, 진성리더십, 숙달목표지향성, 사회적지지로 구성된 인과관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133명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은 창업가의 웰빙에 크게 유의한 영향(경로계수=0.72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의 '촉적'이 창업가의 웰빙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요인을 개별변수로 분리하여 분석한 경우, 자기효능감과 희망의 두 요인이 창업가의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측과 다르게 낙관주의와 회복탄력성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림 3>에서 나타내는 잠재변수점수(latent variable score)상으로도 자기효능감(0.467), 희망(0.521), 낙관주의(0.122), 회복탄력성(0.019)이 긍정심리자본을 형성하는데 차

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의 표본집단이 나타내는 특성으로 추론된다.

Luthans et al.(2007)는 긍정심리자본(PsyCap)을 연구변수로 처리할 때, 개별적인 하위요인을 다루는 것보다 네가지 요인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은 설명력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진성리더십은 긍정심리자본에 크게 유의한 영향(경로 계수=0.54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성리더십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네가지에 대해서도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진성리더십이 탄생 배경에서부터 긍정심리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진성적인 리더의 특징이 확신, 희망,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의미성의 복구 등과 밀접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Avolio et al., 2004; Gardner et al., 2011). 측정변수를 바탕으로 이 결과를 해석하면, 창업가가 리더로서의 가치와 신념에 매진하고 본인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긍정심리자본의 증진에 도움이 되며, 이는 곧 창업가 자신의 정신적인 웰빙에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이다.

셋째, 숙달목표지향성은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경로 계수=0.170)을 미쳤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과 희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숙달목표지향성은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성취목표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창업가의 이러한 태도가 긍정심리자본의 증진을 통해 창업가의 웰빙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숙달목표지향성이 낙관주의(Kardas et al., 2019)나 회복탄력성(Jowkar et al., 2014)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 위주로 진행했던 선행연구와의 조사대상 차이와 국가·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넷째, 사회적지지는 긍정심리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하위요인인 낙관주의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가족, 친구, 주요타인의 도움과 지지가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어긋난 것이다. 통념상 사회적지지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제공자의 태도나 도움의 정도 또는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Taylor, 2011), 본 연구결과에서 사회적지지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혼재되어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설검정과 별도로 진행했던 다집단분석을 통해, 사회적지지가 창업가의 웰빙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진성리더십, 숙달목표지향성, 사회적지지, 긍정심리자본, 창업가의 웰빙간의 영향관계는, 창업초기와 성장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연구문제(RQ1)를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위계적성분모형(HCM)에서 나타나는 4가지 경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하위요인에 대한 결과에서는 <그림 5>, <표 11>과 같이 총 네가지 경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진성리더십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기보다는 창

업초기에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리더로서의 가치와 신념에 매진하고 본인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는 측면이 창업초기에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초기의 창업가가 성장기보다 신념과 각오, 솔직함이 더 두드러진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진성리더십과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회복탄력성과의 창업초기-성장기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숙달목표지향성은 희망과 낙관주의에 대해서 창업초기에는 부(-)의 영향을, 성장기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초기의 창업가는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성취목표의 태도가 긍정적이지 않지만, 성장기에는 긍정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숙달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과의 창업초기-성장기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지지가 낙관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초기에 매우 강한 정(+)의 영향을 보이지만, 성장기에는 그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미래의 성공에 대한 창업가의 낙관적인 태도가, 창업초기에 가족, 친구, 중요타인의 도움과 지지에 의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4년이후 성장기에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과의 창업초기-성장기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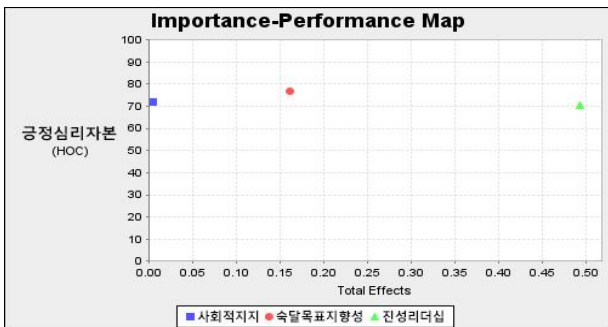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국내 창업가정신 연구분야에 창업가의 웰빙을 화두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창업학회지 477편과 벤처창업연구 926편의 논문 중에, 창업가의 웰빙을 다룬 연구는 이종건·나병민(2013)의 ‘창업자의 희망이 감정적 소모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일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성과요인 탐구에 편중되었던 국내 창업가정신 연구주제의 확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둘째, 본 연구는 창업가 웰빙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창업기업의 가장 핵심 주체인 ‘창업가’의 정신적 웰빙이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가의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진성리더십의 함양, 숙달목표지향성의 훈련, 사회적지지의 확보와 같은 실천적 방안을 내포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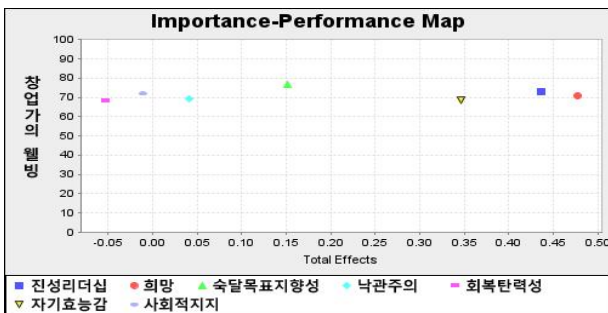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핵심 구성개념인 긍정심리자본에 대해 다각적 분석을 시도했다. 긍정심리자본을 형성하는 네가지 하위요인에 대해서 통합개념과 분리개념으로 분석모형을 설계하여, 두 모형에 대해 각각 인과관계와 매개관계 및 집단별 차이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사용된 2단계접근법(two-stage approach)를 활용한 위계적성분모형(HCM)분석은 아

직까지 창업가정신 연구에 도입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가에게 높은 수준의 진성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제언한다.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그림 6>의 중요도-수행도 분석(IPMA) 결과는, 진성리더십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 수행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나타낸다. 이는 진성리더십이 더 증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창업가의 웰빙에 대한 <그림 7>의 중요도-수행도 분석(IPMA) 결과는, 창업가 웰빙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진성리더십과 희망을 나타낸다. 한편, 진성리더십과 희망의 영향관계는 <그림 5>와 같이 초기창업가는 매우 높고 성장기 창업가는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창업가의 진성리더십을 창업초기부터 성장기까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이 창업가의 웰빙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근거로, 창업가에게 진성리더십의 구성요소인 자기인식, 도덕성, 투명성, 균형된 처리에 대해 꾸준히 재고하고 실천하기를 권고한다.



<그림 6>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IPMA 결과



<그림 7> 창업가웰빙에 대한 IPMA 결과

둘째, 창업초기 창업가들의 숙달목표지향성과 희망, 낙관주의간의 관계가 부(-)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의 영향관계를 보인 성장기 창업가들의 결과와 반대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초기창업가들이 창업 및 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소하게 여기고 있거나 그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초기창업가들에게 관련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재고하여, 높은 성취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가설검증결과 <표 11>와 IPMA분석 결과 <그림 7>은 창업가의 웰빙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 희망과 자기효능감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개념인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으로 두 요인을 다루었지만, 희망과 자기효능감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어온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상태였다. 따라서, 통합개념인 긍정심리자본의 선행요인으로 제시했던 진성리더십, 숙달목표지향성, 사회적지지 이외에도, 이 개별요인들에 대한 영향요인들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가정신 연구자와 교육자들이 Snyder(2000)가 제시한 희망증진 훈련모델과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향상방안을 기초로 ‘창업가’에게 필요한 증진방안을 개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창업가의 웰빙 차원에서 매우 가치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창업가의 웰빙과 관련된 요인들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나, 연구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조사 표본의 크기와 범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표본은 133명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따른 한계가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를 더 늘려야 할 것이고, 다양한 산업분야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참조했던 대부분의 문헌들은 해외 창업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의 결과이라는 점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 정신적인 웰빙은 국가, 민족,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Diener et al., 2003; Eid & Diener, 2001), 본 연구의 진행방향이 국내 창업가의 심리적 체계에 얼마나 근접했는가의 문제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와 긍정심리자본 간의 유의한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가설검증과는 별도의 추가분석에서 사회적지지와 창업가의 웰빙 간의 긍정적인 인과관계가 예측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접근(김명철·동학람, 2020)을 통해, 긍·부정 효과에 대한 명확한 영향관계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REFERENCE

김명철·동학람(2020). 긍정심리자본과 사회적 지지가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3), 191-206.

이종건·나병민(2013). 창업자의 희망이 감정적 소모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8(4), 1-8.

임태홍(2014). 한국판 긍정심리자본척도(K-PPC) 타당화 검증. *코칭능력개발지*, 16(3), 157-166.

창업진흥원(2017). 2017년 창업인식 실태조사.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act=view&list\\_no=1072&tag=&nPage=1](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act=view&list_no=1072&tag=&nPage=1).

창업진흥원(2020).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

-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tag=&act=view&list\_no=1762.
- 통계청(2019).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9/6/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2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9/6/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2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Ames, C.(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3), 261-271.
- APA(2014). *The road to resilience*. Retrieved from <https://www.apa.org/helpcenter/road-resilience>.
- Avolio, B. J., Gardner, W. L., Walumbwa, F. O., Luthans, F., & May, D. R.(2004). Unlocking the mask: A look at the process by which authentic leaders impact follower attitudes and behaviors. *The Leadership Quarterly*, 15(6), 801-823.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erkman, P. L.(1971). Measurement of mental health in a general population surve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94(2), 105-111.
- Berry, L. S.(2007).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hope: Predicting success on the ACT*. Doctoral thesis, Aurora University.
- Brunetto, Y., Farr-Wharton, R., & Shacklock, K.(2011). Using the Harvard HRM model to conceptualise the impact of changes to supervision upon HRM outcomes for different types of Australian public sector employe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2(3), 553-573.
- Butkovic, A., Brkovic, I., & Bratko, D.(2011). Predicting well-being from personality in adolescents and older adul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3), 455-467.
- Carree, M. A., & Verheul, I.(2011). What makes entrepreneurs happy?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among founde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2), 371-387.
- Chavapattanakul, P.(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quotient, social support and spiritual well-being of caregivers of patients with hemiplegia. *Siriraj Medical Journal*, 72(3), 245-252.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J.(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98(2), 310-357.
- Cooper, A. C., & Artz, K. W.(1995).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for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 439-457.
- Costa, P. T., & McCrae, R. R.(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4), 668-678.
- Delgado-García, J. B., & Rodríguez-Escudero, A. I.(2012). Influence of Affective Traits on Entrepreneur's Goal and Satisfac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0(3), 408-428.
- Deneve, K. M., & Cooper, H.(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2), 197-229.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ener, E., Fujita, F., Tay, L., & Biswas-Diener, R.(2011). Purpose, mood, and pleasure in predicting satisfaction judgm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5(3), 333-341.
- Diener, E., Oishi, S., & Lucas, R. E.(2003).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al Review Psychology*, 54, 403-425.
- Dolan, P., Peasgood, T., & White, M.(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1), 94-122.
- Eid, M., & Diener, E.(2001). Norms for experiencing emotions in different cultures: inter- and intranation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5), 869-885.
- Elliott, A. J., & Church, M. A.(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72(1), 218-232.
- Elliott, E. S., & Dweck, C. S.(1988). Goals: An approach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1), 5-12.
- Fairbrother, N.(2011). Social support. *BC's Mental Health and Addictions Journal*, 6(4), 7-10.
- Freeman, M. A., Johnson, S. L., Staudenmaier, P. J., & Zisser, M. R.(2015). *Are entrepreneurs "touched with fire"?* Unpublished manuscript. San Francisco, CA: University of California.
- Gardner, W. L., Cogliser, C. C., Davis, K. M., & Dickens, M. P.(2011). Authentic leadership: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search agenda. *The Leadership Quarterly*, 22(6), 1120-1145.
- Gore, S.(1978).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in moderating the health consequences of un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Association*, 19(2), 157-165.
- Gurung, R. A., Taylor, S. E., & Seeman, T. E.(2003). Accounting for changes in social support among married older adults: Insights from the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Psychology and Aging*, 18(3), 487-496.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2019). *Multivariate data analysis (8 ed.)*. Hampshire, UK: Cengage learning.



- Höck, C., Ringle, C. M., & Sarstedt, M.(2010). Management of multi-purpose stadiums: importance and performance measurement of service interfaces.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s Technology and Management*, 14(2/3), 188-207.
- Hsieh, P., Sullivan, J. R., & Guerra, N. S.(2007). A closer look at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and goal orientation. *Journal of Advanced Academics*, 18(3), 454-476.
- Idris, I., Khairani, A. Z., & Shamsuddin, H.(2019). The influence of resili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laysian university undergradu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8(4), 153-163.
- Jowkar, B., Kojuri, J., Kohoulat, N., & Hayat, A. A.(2014). Academic resilience in education: The role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Journal of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 Professionalism*, 2(1), 33-38.
- Kaplan, A., & Maehr, M. L.(1999). Achievement goals and student well-being.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4(4), 330-358.
- Kardas, F., Cam, Z., Eskisu, M., & Gelibolu, S.(2019). Gratitude, hope, optimism and life satisfaction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Euras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82), 1-20.
- Kim, M. C., & Dong, H. L.(2020). A study on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suppor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3), 191-206.
-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2017). 2017 *A survey on entrepreneurship recognition*.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act=view&list\\_no=1072&tag=&nPage=1](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act=view&list_no=1072&tag=&nPage=1).
-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2020). 2019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start-up companies*.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tag=&act=view&list\\_no=1762](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tag=&act=view&list_no=1762).
- Lall, M. D., Gaeta, T. J., Chung, A. S., Dehon, E., Malcolm, W., Ross, A., & Himelfarb, N. T.(2019). Assessment of physician well-being, part one: burnout and other negative states. *Wester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20(2), 278-290.
- Lee, J. K., & Na, B. M.(2013). The effects of entrepreneurs' hope on emotional exhaus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4), 1-8.
- Lim, T. H.(2014).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K-PPC).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16(3), 157-166.
- Lohmöller, J. B.(1989). *Latent variable path modeling with partial least squares*. Heidelberg, Germany: Physica.
- Luthans, F.(2002).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6), 695-706.
- Luthans, F., Avolio, B. J., Avey, J. B., & Norman, S. M.(200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60(3), 541-572.
- Luthans, F., Luthans, K. W., & Luthans, B. C.(200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47(1), 45-50.
- Magaletta, P. R., & Oliver, J. M.(1999). The hope construct, will, and ways: Their relations with self-efficacy, optimism, and general well-be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5), 539-551.
- Nurwahyuni, E., Poeranto, S., & Supriati, L.(2019). Anxiety as predictor of negative psychological well-being on chemotherapy patients of breast cancer.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1(3), 63-68.
-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9). *Business vitalization administrative statistics as of 2018*.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9/6/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2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9/6/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2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Parker, S.(1998). Enhancing role breath self-efficacy: The role of job enrichment and other organizational interv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6), 835-852.
- Pugliesi, K.(1999). The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Effects on work stress, job satisfaction, and well-being. *Motivation and Emotion*, 23(2), 125-154.
- Rauch, A., Fink, M., & Hatak, I.(2018). Stress processes: An essential ingredient i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32(3), 340-357.
- Ringle, C. M., Sarstedt, M., & Straub, D. W.(2012). A critical look at the use of PLS-SEM in MIS Quarterly. *MIS Quarterly*, 36(1), 3-14.
- Rook, K. S.(1987). Reciprocity of social exchange and social satisfaction among older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145-154.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5), 1069-1081.
- Ryff, C. D.(2017). Eudaimonic well-being, inequality, and health: Recent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64(2), 159-178.
- Ryff, C. D.(2019). Entrepreneurship and eudaimonic well-being: Five venues for new scie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4(4), 646-663.
- Ryff, C. D., & Keyes, C. L. M.(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Scheier, M., & Carver, C.(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3), 219-247.
- Schulman, P.(1999). Applying learned optimism to increase sales productivity. *Journal of Personal Selling & Sales Management*, 19(1), 31-37.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 Shepherd, D. A., Wennberg, K., Suddaby, R., & Wiklund, J.(2018). What are we explaining? A review and agenda on initiating, engaging, performing, and contextualizing entrepreneurship. *Journal of Management*, 45(1), 159-196.
- Shir, N.(2015). *Entrepreneurial well-being: The payoff structure of business creation*. Doctoral thesis,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 Silverstein, M., Chen, X., & Heller, K.(1996). Too much of a good thing?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4), 970-982.
- Slack, N.(1994). The importance-performance matrix as a determinant of improvement prio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14(5), 59-75.
- Snyder, C. R.(2000).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 applications*. San Diego: Academic Press.
- Snyder, C. R., Sympson, S. C., Ybasco, F. C., Borders, T. F., Babyak, M. A., & Higgins, R. L.(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s of the state of hop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21-335.
- Stephan, U.(2018). Entrepreneur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A review and reseach agenda.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32(3), 290-322.
- Tan, C. S., & Qu, L.(2015). Stability of the positive mood effect on creativity when task switching, practice effect, and test item differenc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49(2), 94-110.
- Tan, C. S., Tan, S. A., Mohd Hashim, I. H., Lee, M. N., Ong, A. W. H., & Yaacob, S. N. B.(2019). Problem-solving ability and stres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happines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31(1), 15-25.
- Taylor, S. E.(2011). *Social support: A review*. In *The Oxford Handbook of Health Psychology*(pp. 189-21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hoits, P. A.(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2), 145-159.
- van Steijn, M. E., Scheepstra, K. W. F., Yasar, G., Olf, M., de Vries, M. C., & van Pampus, M. G.(2019). Occupational well-being in pediatricians-a survey about work-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European Journal of Pediatrics*, 178(5), 681-693.
- Wagnild, G., & Young, H.(1993).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1(2), 165-178.
- Walumbwa, F. O., Avolio, B. J., Gardner, W. L., Wernsing, T. S., & Peterson, S. J.(2008). Authentic leadership: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eory-based measure. *Journal of Management*, 34(1), 89-126.
- Wiklund, J., Nikolaev, B., Shir, N., Foo, M. D., & Bradley, S.(2019). Entrepreneurship and well-being: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4(4), 579-588.
- Williams, P., Barclay, L., & Schmied, V.(2004). Defining social support in context: a necessary step in improving research, intervention, and practic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4(7), 942-960.
- Wincent, J., Örtqvist, D., & Drnovsek, M.(2008). The entrepreneur's role stressors and proclivity for a venture withdrawal. *Scandinavian Journal of Management*, 24(3), 232-246.
- Wolters, C. A.(2004). Advancing achievement goal theory: Using goal structures and goal orientations to predict students' motivation, cogni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2), 236-250.
- Yuksel, A., & Bahadir-Yilmaz, E.(2019).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xiety, cognitive distor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nursing students. *Perspect Psychiatr Care*, 55(4), 690-696.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s' Well-Being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Antecedents

Kim, Hyeong Min\*

Kim, Jin So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 well-being, and to propose several ways to improve it. First, the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s' well-being were explored via previous literature review,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was selected as the main factor. In addition, the hypotheses were formulated and the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by selecting authentic leadership, mastery goal orientation, and social support as the antecedents predictably associated with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o empirically analyze the proposed model,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entrepreneurs who fulfilled the training/coaching/consulting programs offered by the Youth Startup Academy. By using the collected 133 responses, PLS-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LS-Multi Group Analysis(MGA), and PLS-Importance-Performance Map Analysis(IPMA) were perform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high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well-being of entrepreneurs; and authentic leadership and mastery goal orien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owev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has not been verified. While differences in causality between early and growing stages of start-ups only acted as sub-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aforementioned three anteceden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hope and optimism, respectively.

This study expanded the topic of entrepreneurship-related research, which mostly focuses on identifying the performance factors of start-up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verified the causality model constructed by exploring the factors with respect to the mental well-being of entrepreneurs, which is a main theme in the entrepreneurship-related research. These results found in the current study will render practical insights to entrepreneurs, researchers, and educators.

*KeyWords: Entrepreneurs' well-be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uthentic Leadership, Mastery goal orientation, Social Support, Hierarchical component modeling(HCM)*

---

\* First Author, Ph.D. Student,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Chung-Ang University, bossmin90@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sunny@cau.ac.kr